

여수 축제 운영 '굿'...해양관광도시 위상 '업'

올해 6개 축제 사후평가

항일암 일출제 만족도 최고
거북선축제 경제효과 190억원
영취산 진달래축제 등 호평
주차장·비싼 음식값 불만도
장단점 파악해 개선방향 모색

여수시가 성공적인 축제 운영으로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실제 올해 개최된 축제들이 전년도에 비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민·관광객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수시는 올해 9월까지 열린 6개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조사는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와 지역문화 연구원 등이 맡았다.

평가 결과 83.5점의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항일암 일출제'를 비롯한 5개의 축제 모두 성공적 행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방문객 수 70%에 육박하는 관광객 비율을 보인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관광객 유치효과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지역사회 연구소가 조사한 축제기간(2박 3일) 경제효과도 88억원에 달한다.

산신제와 새집달기 체험 등 지난해 축제에 비해 올해 더욱 다양해진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새롭게 마련된 웅천 친수공원 프린지 무대 공연도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올해 52회째를 맞은 여수 대표 '거북선 축제'는 지난 5월 추무공 이순신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순신광장과 종포 해양공원 등에서 펼쳐져 시민·관광객들의 참여를 높였다.

34만 5000여명이 방문한 축제기간 가장 많은 19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74점을 기록했다.

여수 밤바다를 수놓은 '2018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는 지난 달 9일 오후 8시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해상에서 화려한 불



지역 대표 축제로 부상하고 있는 여수 거북선 축제. 여수시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축제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양관광도시 위상을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여수시 제공>

꽃쇼와 함께 다양한 행사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지난해 불꽃 축제(1박 2일)와 달리 올해 하루로 축소 개최 됐지만 무려 13만 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41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성공에는 이전 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꽃 쇼가 다양하게 연출된 것이 주효했다.

불꽃 색깔이 계속 변하는 '멀티컬러 불꽃'과 이중으로 날아올라 불꽃 쇼를 연출하는 'UFO 불꽃', 수직 상승하는 불꽃과 여러 색깔의 불꽃이 무지개를 연상케 하는 무지개 불꽃 등이다.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여수 항일암 일출제는 1박 2일 축제기간 4만 8000여명이 방문, 51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항일암 일출제는 길놀이, 소망불 밝히기, 타종행사, 해돋이 행사 등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만족도를 기웠다.

이밖에 지난해에 비해 높은 참여도를 기록한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체험행사와

90.2점의 시민평가 점수를 기록한 청년거리문화 한마당도 성공축제로 평가 받았다.

여수시 축제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보완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 통제영 길놀이와 용출다리기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호평 받았던 거북선 축제는 일부 체험비가 비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과 관광해설사 배치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였지만 여수국가산단 공장 증축으로 인한 향후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도 임시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 4대 해돋이 명소인 여수 항일암 일출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마련해 축제 재미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리적 특성상 주차·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시설확보, 안전 등의 대책을 더욱 확대해 갈 방침이다.

올해 22회째 열린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는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으로 지난해 벗어났던 극심한 교통난은 피했지만 행사 후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낭만포차 등 주요관광 상품이 집중된 중심 관광지인 만큼 지난해처럼 비싼 음식 값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여수시는 지속적인 관광업소 계도와 함께 내년 축제 장소에 대한 시민·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기간 기상악화에 대비한 신속한 조치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청년거리문화 한마당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재의 여수시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여수 거북선 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들을 앞으로 지역민·관광객이 모두 하나되는 대화의 축제로 만들겠다"며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는 물론 원도심에 집중된 관광객 분산효과와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하라"

전담 TF팀 구성 본격 활동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와 연계

여수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론화됨에 따라 고재영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여수시가 공공기관 유치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이 거론되는 기관은 서울 93개, 경기 20개, 인천 3개 등 총 116개다.

시는 TF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자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산단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집중하는 것을 전략으로 잡았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여수어항공단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인규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최우선 유치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양, 산단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TF팀은 해양수산과 지역경제, 산단지원 담당 부서 16명으로 구성했다.

TF팀은 최근 시청 부시장실에서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TF팀 구성에 이어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치활동을 펼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이 있는 도시로 동서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며 "이런 여수의 차별화된 입지여건과 장점을 부각시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한화케미칼, 다문화가족 위한 사랑나눔



400여명 참석 한마음 체육대회

여수국가산단내 주요기업인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나눔을 펼쳤다.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제4회 한화케미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 20일 사택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여수지역에 거주하는 4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한화케미칼 임직원 등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명랑운동회와 가족 장기자랑, 가족문화 체험부스 등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가족화합 한마당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행사비 전액을 지원해 마련됐으며 중앙여고와 한영대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다.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김형준 공장장은 "이번 행사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문화교류·체험의 공간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여수다문화복지원과 협약을 맺고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펼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만의 청년 일자리 창출 15억여원 투입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여수시가 여수만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중 9억2000만원은 국·도비를 지원받는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청년 창업 지원사업

과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각각 10팀과 3팀을 선발해 창업교육을 하고 있다.

창업교육 후에는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영농영여조합법인 등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월 현재 25명의 청년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다. 시는 지원이 종료되는 2년 후 청년들이 해당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 청년 창직형 창업 지원사업은 현재 준비 중이다.

청년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본 부시도는 고적역 이동을 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우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기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